

■제1독서: 읍기의 말씀입니다. 19,1.23-27

1 읍이 말을 받았다. 23 “아, 제발 누가 나의 이야기를 적어 두었으면! 제발 누가 비석에다 기록해 주었으면! 24 철필과 납으로 바위에다 영원히 새겨 주었으면! 25 그러나 나는 알고 있다네, 나의 구원자께서 살아 계심을. 그분께서는 마침내 먼지 위에서 일어서시리라. 26 내 살갗이 이토록 벗겨진 뒤에라도 이 내 몸으로 나는 하느님을 보리라. 27 내가 기어이 뵙고자 하는 분, 내 눈은 다른 이가 아니라 바로 그분을 보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시다.

-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 나 누구를 두려워하랴? 주님은 내 생명의 요새. 나 누구를 무서워하랴? ◎
- 주님께 청하는 오직 한 가지, 나 그것을 얻고자 하니, 내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며, 주님의 아름다움 바라보고, 그분의 성전 우러러보는 것이라네. ◎
- 주님, 부르짖는 제 소리 들어 주소서. 자비를 베푸시어 응답하소서. 제가 당신 얼굴을 찾고 있나이다. 당신 얼굴 제게서 감추지 마소서. ◎
- 저는 산 이들의 땅에서, 주님의 어지심을 보리라 믿나이다. 주님께 바라라. 힘내어 마음을 굳게 가져라. 주님께 바라라. ◎

■제2독서: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5,5-11

형제 여러분, 5 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성령을 통하여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6 우리가 아직 나약하던 시절, 그리스도께서는 정해진 때에 불경한 자들을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7 의로운 이를 위해서라도 죽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혹시 착한 사람을 위해서라면 누가 죽겠다고 나설지도 모릅니다. 8 그런데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심으로써, 하느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9 그러므로 이제 그분의 피로 의롭게 된 우리가 그분을 통하여 하느님의 진노에

서 구원을 받게 되리라는 것은 더욱 분명합니다. 10 우리가 하느님의 원수였을 때에 그분 아드님의 죽음으로 그분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가 이루어진 지금 그 아드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받게 되리라는 것은 더욱 분명합니다. 11 그뿐 아니라 우리는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을 사랑합니다.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화해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이들아 와서, 세상 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된 나라를 차지하여라. ◎ 알렐루야.

■복음: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5,1-12

그때에 1 예수님께서는 군중을 보시고 산으로 오르셨다. 그분께서 자리에 앉으시자 제자들이 그분께 다가왔다. 2 예수님께서 입을 여시어 그들을 이렇게 가르치셨다. 3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4 행복하여라, 슬퍼하는 사람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5 행복하여라, 온유한 사람들!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6 행복하여라, 의로움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들! 그들은 흡족해질 것이다. 7 행복하여라, 자비로운 사람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8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을 볼 것이다. 9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 10 행복하여라,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11 사람들이 나 때문에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며, 너희를 거슬러 거짓으로 온갖 사악한 말을 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12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영성체송: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 공지사항

▪ 위령성월

교회는 해마다 11월 2일을 기념하는 '죽은 모든 이를 기억하는 위령의 날'과 연관하여 11월 한 달을 '위령성월'로 지내고 있습니다. 위령성월은 세상을 떠난 이들의 영혼을 특별히 기억하며 기도하는 날입니다. 따라서 세상을 떠난 가족이나 신자들의 영혼은 물론 죽은 모든 이들과 특히 고통받는 연옥 영혼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전례력으로 연중 시기의 마지막에 속하기에 미사 독서에서는 이 세상의 종말에 관한 말씀을 많이 듣게 되는데요. 이에 우리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도 깊이 묵상하는 은총의 시기이니, 미사 전례에 잘 참여합시다.

■ 우리들의 정성 (다음 주에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 교무금 : 김양후(10), 김복남(9-10), 김진국(10), 윤은숙(10), 이영규(9-10), 장선애(11-12), 최민해(10), 최아영(3, 8), 신창식(10), 장재원(10), 정명호(9-10), 서병욱(IU), 전옥진(IU)

교무금은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교회가 하느님 경배, 사도직과 애덕의 사업 및 교역자들의 합당한 생활비에 필요한 것을 구비하도록 교회의 필요를 지원하고자 하는 신자의 의무입니다. 가톨릭교회는 적어도 한달 중 하루의 수익은 하느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봉헌하자는 취지로 자신의 한달 수입의 1/30(3.3%)이라도 책정하자고 제안합니다.

납부시 교무금 봉투에 '한글 이름', '세례명', '금액', '납입하는 월'을 정확하게 적으신 후 교무금함에 넣어 주세요. 납입 내역은 다음 주 주보, 월별로 게시판에 공지됩니다. 책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전례 봉사자

	연중제31주일(11/02)	연중제32주일(11/09)	연중제33주일(11/16)
해설	이상진 프란치스코	정명호 미카엘	정석훈 마태오
독서	최영표 최남미	김명임 김세동	정명호 김은경
복사	이하은 레베카	공지나 가브리엘라	황시우 베드로
반주	최아영 아녜스	공승윤 수산나	한혜경 아녜스
제대	오미숙 말가리타	이명희 비비안나	공승윤 수산나

November 02, 2025 연중 제31주일

위령의 날 – 첫째 미사

행복하여라, 슬퍼하는 사람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마태 5,4).

Blessed are they who mourn,
for they will be comforted(Mt 5,4).



천주교 인디애나폴리스 한인 성당

Korean Catholic Church of Our Lady of Holy Rosary in Indianapolis

- 성당 : 7536 E 46th St. Indianapolis, IN 46226
- ☎ (317) 542-0863 (문자메시지 가능하며, 선호합니다)
- 홈페이지 : indykcc.org | 이메일 : indykcckorea@gmail.com
- 사제관 : 7556 E 46th St. Indianapolis, IN 46226
- 사목회장 : 공성현 니콜라오 | 담당신부 : 김병조 베드로
- 주일미사 일요일 오전 11시 | 평일미사 수요일 오후 7시 30분
- 고해성사 미사 30분 전부터. 사제에게 요청하세요.